

# “압수수색 남발 안돼...광주시 수사 엄정·신속한 마무리를”

국감초점-광주고·지법, 가정법원, 광주고·지검

### “판사가 경찰 동원 탄원서 취하 부당 압력”...고법원장 “부적절” 나라슈퍼 3인조·무기수 김신해 사건 등 재심 신속 처리 촉구

6일 광주지법과 광주지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고법·지법·가정법원, 광주고검·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법원과 검찰의 신뢰가 추락했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또 ‘재심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광주시청 압수수색’ 등에 대해서도 질문이 쏟아졌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새누리당 권성동 감사위원장을 비롯해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소속 의원 16명이 참석했다.

◇사법부·검찰 신뢰 회복=권성동 감사위원장은 “최근 법조계의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법원과 검찰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총체적 난국이다”고 지적한 뒤 신뢰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광주고법 현직 부장판사의 탄원서 처리 사건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장원성상)은 “광주고법 A부장판사와 B배석판사가 지난 6월 심리 사건의 피해자가 광주고법과 대법원에 낸 탄원서를 취하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법관윤리강령 위반”이라며 “광주고법은 진상조사를 해달라는 피해자의 진정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했다”고 따졌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현직 판사가 경찰 공무원을 동원해 자신이 속한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탄원서를 취하하도록 한 것”이라며 “소송 당사

자의 법관 기피 신청 배척, 전관예우 등 현재 사법부가 드러내는 문제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법원이 이 판사에게 주어진 권한을 넘어서는 부당한 조치”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유남석 광주고법원장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 해당 판사의 행동이 재판의 공정성에 오해를 야기할 수 있기에 지적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했다”고 해명했다.

◇재심사건 신속 처리=익산 약촌오거리 사건, 삼례 나라슈퍼 3인조 사건, 무기수 김신해 사건 등 현재 진행 중인 재심 사건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법원의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은 “약촌오거리 살인 재심 청구인이 복역 중 경찰이 진범이므로 있다는 첩보를 듣고 수사해 진범 관련 자백과 증언을 확보했는데도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며 “이는 검찰이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 진범을 밝혀내기 위한 경찰의 수사를 막은 것이다”고 주장했다.

◇광주시 압수수색=김용구 전 광주시 정책자문관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광주시청을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한데 대해 의원들은 “엄정하게 수사하되, 신속하게 마무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선서하는 검사들 6일 오후 광주고등검찰청에서 광주고검·대전고검 등 지방검찰청을 상대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각 지역 검사들이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의원(목포)은 “광주시의 잘못이 있다면 누구를 불문하고 일벌백계 해야 한다. 하지만 ‘조차용 한칼 쓰듯’ 압수수색을 하면 안된다. 저인망 쌍끌이 어선처럼 끌고 가면 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경기 남양주)은 “구조적인 부패고리는 반드시 제거해달라”면서 “광주시청 7개 실·국에 대한 압수수색이 과잉이고, 광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희재 광주지검장은 “광주시장을 수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필요 최소한으로 압수수색을 했다”면서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김관영 “원샷법 1호 기업 대표 부인은 차대통령 사촌”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산업은행이 박근혜 대통령 친인척과 관련된 동양물산기업에 자회사를 매각하며 헐값매각 특혜, 저리(低利)를 통한 대출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지난해 소위 ‘원샷 법’ 첫 건으로 동양물산기업이 국제종합기계를 인수한 것을 승인했고 산업은행은 인수자금으로 160억원을 지원했다”며 “하지만 동양물산기업 김희용 대표이사 부인이 박 대통령 사촌인 박설자씨”라고 밝혔다.

동양물산기업은 박 대통령 사촌인 박설자씨 남편이 운영하고, 박씨가 자본 2.18%를 갖고 있는 업체다.

김 원내수석은 이어 “산업은행은 자회사였던 국제종합기계에 2011년 워크아웃 당시 639억원을 빌려줬고 출자전환으로 동양물산기업에 인수시키며 회수한 돈이 165억원”이라며 “국제종합기계는 올해 초 워크아웃을 졸업할 만큼 회사 사정이 상당히 호전되는 상황이라 사실상 ‘헐값매각’이란 것이 시장 평가”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동양물산기업이 국제종합기계를 인수하며 자체적으로 들여간 돈은 하나도 없다. 인수대금 590억 원 가운데 160억 원은 산업은행이 빌려주고 나머지는 사모펀드로 조달했다”며 “당국은 이번 인수에 특혜가 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

## 국감현장

국회가 6일 정상화 사흘째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여야는 안전행정부·교육문화체육관광부·미래창조과학부·통신통신위 등에서 각종 쟁점을 놓고 충돌했다.

### “거짓말 경찰 믿을수 없어” “법치주의 해쳐”...고 백남기 부검 공방

◇안행위=이날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 서울 도심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혼수상태에 빠진 끝에 사망한 ‘고(故) 백남기’ 농민 사태가 또다시 쟁점이 됐다. 야당 의원들은 특히 살수차 진압 행위를 포함한 경찰의 과잉대응이 백씨의 사망원인이 됐다는 점을 집중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남춘 의원은 “경찰청은 그동안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 등에서 당시 현장 경찰관들이 시위대가 던진 투척물 등으로 인해 차벽 뒤쪽으로 밀려나 있어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모습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는데, CCTV 확인결과 차벽 위에 무수히 많은 경찰이 있었다”며 “이중 단 한 사람도 보지 못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이어 “이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으

로 일관하는 경찰을 믿을 수 없으며, 경찰이 관여하는 부검 역시 믿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강형주 서울중앙지법 원장은 법사위 국감에서 ‘부검 영장에 붙는 조건은 압수 절차와 방법에 대한 것으로 일부 기각의 취지로 한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면서 “그럼에도 경찰은 백남기 농민의 부검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25일까지 가족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부검을 강제집행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 간사인 윤재옥 의원은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조속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유족과의 협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맞섰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최순실·차은택 등 증인 채택 반대 새누리 위원들 집단 퇴장 파행

◇교문위=이날 전국 광역시 교육청을 상대로 실시기로 한 국정감사는 최근 의혹의 중심인 미르·K스프츠재단 관련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격돌하면서 감사는 시작도 못하고 파행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 소속 위원들은 오는 13일 문화체육관광부 종합감사의 증인채택 시한인 이날 의혹의 핵심인물인 최순실씨와 차은택 감독 등 두 명은 반드시 일방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민주 간사인 도종환 의원은 “신정환 17명의 증인 중 여당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을 제안해달라고 요구했고 그중 몇 명이라도 증인 부를 것을 수정 제의했지만, 오늘까지도 답을 못 들었다”며 “증인과 참고인 등 19명 중 한 명씩 논의하거나 의결절

차에 들어갈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은 “미르·K스프츠재단 관련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격돌하면서 감사는 시작되고 있고 검찰 조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각 당 입장이 다른 증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채택했다면 채택할 수밖에 없지만 국회법과 상임위 절차에 따라 안전조정심의회를 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성엽 위원장이 감사 중지를 선언하고 일방증인 출석 요구의 건 상정을 위해 전체회의를 개최하자 염 의원이 위원장석으로 나와 항의를 하고 새누리당 위원들이 집단 퇴장하면서 파행에 들어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안행위 태풍 피해 현장 방문

### 광주시·광주경찰청 국감 취소

국회 파행과 태풍 ‘차바’ 피해 여파로 국정감사 일정 일부 취소되거나 변경됐다.

6일 국회와 지역청에 따르면 국회 안전행정부 위원회는 오는 10일 광주시에 대한 국감을 진행할 예

정이었으나 태풍 ‘차바’ 피해가 심각한 지역의 현장 방문을 위해 국감을 취소했다.

광주시는 이날 국감 사전보고회를 갖는 등 국감 준비를 했으나 한시름 놓게 됐다. 광주시에 이어 같은 날 국감을 받을 예정이었던 광주지방경찰청 역시 취소됐다.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 역시 당초 6일에서 7일로 연기되고 수감장소도 국회로 바뀌었다. /최권일기자 cki@

## SUV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2017 티볼리**  
**2017 티볼리 에어 탄생!**

**알아서 지켜주고, 스스로 멈춰주는 SAFETY UPGRADE**

주행 중 차선을 알아서 지켜주는 차선이탈 자동복귀 시스템과 전방 충돌 위험시 스스로 멈춰주는 자동 비상제동 시스템, 하이빔 어시스트로 이제 안전까지 잊지않게!

---

**2017 코란도 투리스모 탄생!**

**더 세련되고, 더 편안해진 STYLE & COMFORT UPGRADE**

더 넓고 편안한 Dual Flex Seat와 동반석 통풍시스템, 세련된 감각의 블랙인테리어로 스타일은 물론 편안함까지 한단계 업그레이드!

---

2017년형 모델 출시 기념 특별 판매조건

**RV 전차중 5년/10만Km 무상보증 Upgrade**  
(차체 및 일반부품, 엔진·구동계통)

2017 티볼리, 티볼리 에어, 코란도 투리스모 조기출고 현금지원

- ▶ 티볼리, 티볼리 에어: 10월 17일 이전 출고 30만원 지원 / 10월 18일 이후 출고 10만원 지원
- ▶ 코란도 투리스모: 10월 17일 이전 출고 70만원 지원 / 10월 18일 이후 출고 50만원 지원

---

# KOREA Sale FESTA

with **쌍용자동차**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념 Special Price 최대 10% D.C** (선착순 1,000명)

차종	2016 티볼리	2016 티볼리 에어	2016 투리스모	코란도 C	렉스턴
할인율	5%	5%	10%	5~10%	5~10%

\* 상기 할인 조건은 차종별 일대일 한정 혜택으로 대상 차종 소진 시 자동 종료됩니다.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념 Tivoli Auction**  
10월 한달, 매주 금요일 티볼리 1대를 최대 50% 가격에 만날 수 있는 경매 이벤트. \*용량방법: 쌍용자동차 홈페이지(www.ssmotor.com)에서 구입신청이 필수

**쌍용자동차 대리점이 참신하고 유능한 영업인력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아래 해당 판매점에 연락 바랍니다.**

<b>구입 문의</b>	• 광주권 : 광주중앙 529-0003	서광주 383-3434	광주광산 952-3330	광주첨단 971-0990	광주빛고을 655-4001	동광주 515-1900	광주양산 573-8900
	• 전남권 : 순천중앙 723-7100	목포중앙 277-8000	순천 745-3666	여수 683-1800	목포하당 285-7576	화순 371-3555	장흥 863-2600
	나주 334-2727	영보 473-3456	진안 433-3100	해남 537-3100	장성 395-0007	담양 383-5811	완도 554-4545
	영광 353-9500	영성 852-2892	광양 761-8900	동광양 791-0071	무안 454-0099	고흥 835-5050	진도 542-5888
	여수구룡 642-1400	함평 324-3800					